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平沼內閣總辭職

一

二十八日 平沼內閣은 緊急閣議의 結果 總辭職을 斷行하엿다. 理由는 首相聲明에도 分明하거니와 平沼內閣의 抱懷하고잇던 對歐策은 獨伊와 防共協定을 締結한 外에 一層 더緊密한 關係를 맨자 ... 하엿는데 意外에 獨逸은 蘇聯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帝國을 背反하야 歐洲에 新情勢를 現出하얏으므로 平沼內閣으로서는 全然 新人으로하야금 新情勢에 對處케함이 輔弼의 責任上 當然한것으로 생각하고 ... 平沼首相은 이것을 決心하고 近衛樞相, 湯淺內府에게도 그뜻을 披瀝하고 各閣僚에게도 ... 今日閣議의 結果 總辭職을 斷行한것이다.

二

생각컨대 平沼內閣은 今年一月四日 近衛內閣의 後任을 바더 成立되엇는데 事變第三年을 마지하야 그 使命이 重大하엿섯다. 卽 蔣介石政權의 最後牙城으로 미더던 武漢三鎭은 비록 陷落되엇다.할지라도 同政權은 重慶에 首都를 遷移하고 英國, 蘇聯으로부터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온갓 後援을 바더 最後抗戰을 豪語하고 잇섯다. 그러므로 平沼內閣으로서는 蔣介石政府의 後援者인 英蘇로 하야금 援蔣行動을 停止하고 帝國의 新東亞秩序建設에 協力케하라하야 爲先 天津事件을 契機로 東京會談을 開始하고 이것이 끗나면 蘇聯에게 一擊을 加할作定으로 獨逸과 親密關係를 맨즈려하엿섯다. 그런데 英國은 日英會談에서 帝國의 要求하는 援蔣行動抛棄의 原則論은 是認하고 具體的 部分問題 卽治安經濟問題에 잇서서 ... 寸步도 讓步할意思를 보이지안코 ... 그런中 獨逸은 五相會議에서의 對歐策 卽獨伊와 軍事同盟을 締結하느냐 마느냐의 問題에 對한 結論도 어들새업시 蘇聯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 帝國에 背信的 行動을 하엿다. 그리하여 平沼內閣은 總辭職을 斷行치 아니치못하게된것이다.

三

平沼內閣의 壽命이 이가치 短少한지라 顯著한 功績을 期待키 難하나 平素 平沼首相에게 囑望햇던 그 期待에는 만흔失望이 잇슬것이다. 卽 日英會談에 잇서서 原則論에 저만흔 英國을 屈伏케한後 細則論에 들어가 英國으로하여금 다시 遁走할 餘裕를 주엇이라든지, 日米通商航海條約의 抛棄를 全然 事前에 몰랏슴뿐 아니라 何等 對策이 업는것이라든지, 對歐策을 둘러싸고 五相會議에 意見의 相違가 잇서 荏苒 一個月이나 遷延햇것만 그것을 裁斷할만한 果斷이 업섯던것이라든지, 獨蘇不可侵條約이 締結되기前 바로 獨逸政府의 發表가 잇슬때까지 그事情을 몰랏다는것은 平沼內閣의 不聰明, 不敏活한 責任을 免치 못할것이다. 世界多端한 情勢에 잇서서 政變은 遺憾만한 일이나 政治的 責任은 究明되지 안흐면 안될것이다.

後繼組閣大命 阿部大將에게降下

【東京電話同盟】後繼內閣組織의 大命은 二十八日午後八時二十分 阿部信行大將에게 降下되엇다

【東京電話同盟】二十八日 天皇陛下로부터 後繼內閣首班에 對하여 御下問을拜한 湯淺內府는 同日午後三時五分 御殿場便船塚別莊으로 西園寺公을訪問,平沼內閣總辭職의顚末을 報告하고後繼內閣首班에關하여 御下問을 拜한旨를 述하여 老公의意見을求한바 約一時間半에亘하여 意見을 交換한結果 後繼內閣首班은 阿部信行大將이 最適任이라는데 意見一致를 보앗스므로 內府는 同四時四十五分 同別莊을辭去,自動車로 箱根經由 午後六時十分 小田原驛發 同七時三十分 新橋驛着 歸京,卽時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內大臣의 責任으로 後繼內閣首班에는 阿部大將이 最適任이란旨를 奉答하엿다. 惶恐하옵신側에서는 同日午後八時二十分 百武侍從長을 通하여 阿部大將을 電話로 宮中에부르옵시매 阿部大將은 軍裝에威儀를가추고 西大久保自邸를나와 同五十分 宮中에參內,天皇陛下께 拜謁한바 이에後繼內閣組織의 大命은 阿部大將에게 降下하엿다 大命을拜한 阿部大將은 恐懼하여 御前을 退下하엿다

阿部大將 談

【東京電話同盟】阿部大將은 大命을拜하고 宮中을退下後 西大久保自邸에 들어갓는데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只今宮中에參內하여 陛下로부터 親히組閣의大命을拜하엿다 그래서 暫間時日의御猶豫를奉乞하고 退下하엿다

阿部大將略歷

陸軍大將 明治八年十一月 石川縣出生(當年六五)明治三十年陸士卒業 同十一年 陸軍砲兵少尉로부터 累進 그동안 陸大卒業 陸軍次官 若槻內閣時代 宇垣陸相臥病中 陸軍大臣臨時代理 第四師團長 臺灣軍司令官等에 歷補昭和八年八月軍事參議官 同十一年三月豫備役 그後一時는 軍事研究次로 獨逸에留學한일도잇는데 同大將은 軍政家로서 優秀하다는것은 이미世上에 定評이잇는바이다

그러나 阿部信行大將은 日露戰爭中에는 留守隊로 終始하고 出征할機會가 업섯고 西伯利亞出兵에는 名古屋砲兵聯隊長으로서 멀리 치타方面에까지 出征하엿스나 到着한即時로 停戰이 되어버렷다 大將은 當時『軍神은 나를버렷던가』라고 切齒扼腕하엿다 大體 어리하여 大將은 한번도 實戰에 參加치못하엿다 陸大優等의 軍刀組로 頭腦明晰한點은 벌써부터 陸軍第一이라는 稱이잇서 溫厚한 性格은 非常히 親하기쉬우나 北陸武士特有의 頑固한 性格을가지고잇서 일직이 宇垣陸相미테 次官으로 잇슬때 病臥中의 陸相代理로서 豫算問題를 圍繞하고 當時藏相 井上準之助氏를 相對로 二時間의 論戰을하여 一步도 讓步치안흔것은 有名한 이야기다 金鵄勳章이업는 陸軍大將이 二二六事件以後 悠悠히 閑地에이던 大將에 어린 새로운 運命으로서 進展하는時代의 한安定을 내고도 말할수잇다 (寫眞은 阿部大將)

親英과親獨을超越 無色透明適任者에

阿部大將에게大命降下經緯

【東京電話同盟】獨蘇不可侵條約締結은 平沼首相으로 하여금 總辭職을 決意케함에 이르럿다 對歐策은 무엇보다 ... 二十二日 首相, 陸相이 對歐策 ... 二十三日 板垣陸相은 再次首相을訪問하고 國際情勢의 展開와 對歐策抛棄와의 責任을 痛感하여 辭意를 表明함에 이르럿다 그리고 ... 近衛樞相은 同日急遽歸京하여 ... 平沼首相은 ... 會見, 政府側情報를 聽取하는바 ... 二十四日 平沼首相은 米內海相, 有田外相 及石渡藏相을 個別的으로 官邸에 招致, 對歐策抛棄에 關하여 諒解를 求하엿다 一方 近衛樞相은 同日葉山御用邸에 伺候하여 ... 湯淺內府와 會見하고 ... 首相의 辭意를 ... 二十五日 ... 時局에 鑑하여 ... 結局 政變은 不可避 ... 內閣總辭職 ... 二十六日 ... 二十八日 ... 閣議에서 總辭職을 決定 ... (本文一部不明)

陸相엔多田駿中將

陸軍三長官이推擧

(寫眞은 多田中將)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陸相後任에關하여 陸軍三長官會議에서 協議한結果 某要職에잇는 多田駿中將을推擧키로되어 二十七日 ... 交涉하엿는데 多田中將의受諾은 確定的으로 觀測된다

最高米價公定

石當三十八圓으로販賣 朝鮮도內地에追隨

總督府當局談

內地에 잇서서는 最近米價가 ... 石當三十八圓이란 價格은 東京大阪大市場에서 取引되는 ... 二十五日에 開催되는 ... 米穀統制委員會의 諮問을經由 ... 朝鮮에잇서서는 現時局下의 米穀問題의 重要性에 鑑하여 ... 一般取引最高價格을 ... 米의三十五圓四十錢을 三十八圓으로 改訂하게된것이다 (本文一部不明)

阿部新宰相을마저

南統治强力前進

朝鮮各界의期待絶大

超非常時下에 更始一新의 國民的興望을 등에진 新宰相阿部信行大將은 帝國의大陸政策에 多大한 經綸을抱懷하여 朝鮮에對하여는 南總督과는 ... 阿部大將은 ... 八月二十一日 支那滿洲視察의 歸途 京城에 들엇스나 ... (本文一部不明)

內政合理的調整과 對蘇軍備를强化

後繼內閣에對한陸軍側態度

【東京電話同盟】陸軍의後繼內閣에對한態度如何는 各方面으로부터 重視되고잇는바 陸軍은 ... 1、擧國一致 國民精神의作興 2、國防力擴充 對蘇軍備의充實 3、生產力擴充 4、貿易統制의强化 5、經濟、社會其他國內諸問題의 合理的調整 ... (本文一部不明)

難局打開를確信

阿部大將에 大命降下와 南總督 談

(寫眞은 南總督)

待望의人物

勝尾朝鮮軍報道部長談

阿部信行大將에 大命이降下된다는報道를 가지고 軍司令官官邸로 中村軍司令官을 訪問하자 ... (本文一部不明)

組閣本部는 虎門霞山會館

【東京電話同盟】後繼內閣組織大命을拜한 阿部大將의 組閣本部는 虎門霞山會館으로 決定하엿다

吉田海軍中將 大阪發東上

【大阪電話同盟】後任海相說이잇는 聯合艦隊司令長官吉田善吾中將은 ... 二十八日午後八時○一分大阪驛發列車로 東上하엿다

海軍機爆擊狀況

【上海二十八日發同盟】艦隊報道 ... 海軍航空部隊는 ... (本文一部不明)

新內閣書記官長엔 遠藤柳作氏로內定

【東京電話同盟】元滿洲國總務廳長貴族院議員 遠藤柳作氏는 後繼內閣의 書記官長으로 內定하엿다

橫山氏組閣本部에

【東京電話同盟】 ... 二十八日午後八時五十分 ... 組閣本部로들어갓다

山脇陸軍次官 澤田次官과協議

【東京電話同盟】山脇陸軍次官은 二十八日午後四時十分外務省에 澤田次官을訪問하고 對支關係問題에 關하여 協議하고 同四時三十五分 辭去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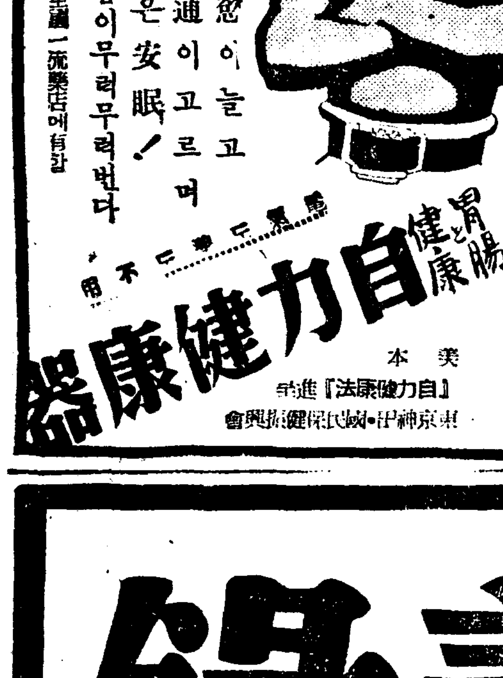
히總統佛提案拒絶

【巴里廿五日發同盟】歐洲政局은 ... (本文一部不明)

人事·集會

市況 (廿八日)

廣告



醫學博士二木謙三先生御推奬
日·獨·英·美特許
食慾이늘고 便通이고르며 밤은安眠! 몸이무럭무럭한다
全國一流藥店에有함
自力健康器
胃腸 健康
『自力健康法』進呈
東京神田 ... 國民保健振興會

早稻田大學講義錄

勤勞靑年의敎育機關

靑年은次代를負擔할國家의至寶인것이다。더욱新東亞의建設은、靑年大衆의힘을기다려서비로서達成되는것이므로諸君은將次負擔할責務의重大性을自覺하여이제야말로眞實한實力의養成에努力하여주기를바란다。

入學者는모두校外生으로待遇하며어분느에게나學校敎育에뒤지지안는學力을엇도록萬全의指導를할다。

詳細는內容見本으로알도록아라。

中等學校程度
中學講義 (月一圓·前後期各一年)
商業講義 (學費月一圓 一年半修了)
高等女學講義 (學費月一圓 一年半修了)
電氣工學豫備講義 (學費月一圓 一ケ年修了)

專門學校程度
政治經濟講義 (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法律講義 (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文學講義 (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建築講義 (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電氣工學講義 (月一圓廿錢 一年半修了)

內容見本
內容見本은반드시志望하는講義錄을써서葉書로申込할것。

東京·牛込·早稻田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
電話牛込三一四五

各道旱災救濟豫算 實行豫算中에서融通
·實行豫算은大藏省의救濟豫算通過後補塡키로
總督府應急方針決定

남조선한해칠개도의 구세대책만에게만이 그에대한 협의를하고 다음 그 결정에충 각도할당액을 리고각도에서 제출된구제사업계에대하여는 누보한바와가치 방이십팔일에도 계속협의중이데하을 각도에 지시하여 우선 금회운 다소 각기표주이 다른데 금총독부에서 조사반의 보고를 루바삐 구제사업을 실시하여야 변도의 다른실행예산중에서 융 비추어전체적으로 각농의 구제 기초로 저번제출한 각도의예산 되겟스므로 총독부에서는 대장 통을 하여 구제사업을 실시하 예산을 그실정에따라 적절하게 총액사천만원을 구체적으로 검 성의 예산통과를 상구하기다릴 고 추후로 대장성의 정식통과 균형(均衡)을 드도하게하리라고 토하고잇서 작이십칠일에는 일 수업다고하여 우선총독부도서의 를 기다려서 그융통예산을 보 한다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밤늣도록 예산을 최종적으로 금속결정한 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엿다그

……徵收치아니하기로함
七、小作人에對한 一切種子의給與、一部補助、無利息으로의貸付 資金及食糧等은無利子又는低利로貸付하고 [illegible]原料等의給與 又는貸付斡旋、肥料의減額 又는免除其他救濟施設을行함

무섭게올라간雜穀抑壓
昨年보다四、五割暴騰 米價를넘어선時勢
指定價格時急實施次京畿道에서準備中

백미가격 억압에 성공한 경기도에서는그뒤를바더 이번에는 좁쌀, 콩, 팟등각종 잡곡에 대하여도 입쌀과가치 가격을통제키로 방침을 결정하엿다 그리해서도 산업과가 중심이되어 가지고 현시세를조사해보는등 방금 그준비에 분망중인데 조사의결과 아래와가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엇다 즉 작년칠월 시세와 금년칠월시세를 비교하면 작년에도 조한섬에이십이원십전이던것이 금년칠월에는삼십원유십전으로 뛰여올랏고 콩은 이십일원칠십팔전이던것이 삼십 던것이 이십팔원구십이전보리는 오원십오전하던것이 십삼원삼십륙전 밀은십팔원십전하던것이이십칠원십칠전으로모두가무섭게뛰어올라 조는사할약(弱) 콩은유할강(强) 밀, 보리도 오할가량씩이나 폭등이다. 이상은지난칠월중 시세이고 최근은이 보다도더 비싸서 요즘조합하시에 사십이원밧는곳도잇서 일작보다도비싼형편이다

그래서 이것을본 경기도산업과에서는이러케 기어오른 잡곡갑을얼마정도로 내려놀려야 백미갑과어울릴까에대해서 신중연구중이데 대체로 작년칠월시세를표준으로하여 이것을 참작해가지고최후적인 지정가격을 결정할모양인데 일의성질상 될수록시급하게곳상을내일터이라한다

旱害對策協議 地主二百餘名會合

【合德】 충남당진군(唐津郡)에서는 군농회의주최로 지난이십오일 오전열한시쯤 합덕, 범천, 신평, 순성(合德、泛川、新平、順城)등 사개면지수와 지수대리이백여명을 합덕연호(合德蓮湖)소학교대강당에 모아노코 농회장 정홍섭(鄭弘燮)씨의사회로 개시 간격의업는간담이 잇슨후 아래와가튼 결의가 잇섯다한다

一、揚水費의半額은地主直擔으로
二、七割以上減收는 小作料及金肥代를 免除하기로함
三、二割以上減收는 小作料及金肥代를輕減함
四、代用作에對한 小作料는徵收치아니함
五、田의小作料는 穗作은 全額의半分 旱穀作은 定額의三分의一을 徵收하기로함
六、二毛麥作을獎勵하되 作料는

中部以南喜雨
밤새껏오긴햇스나큰비는못돼

여름이 다가도록 비다운 비가 내리지안터 하날이 비를 이젓는가 비가 땅을 저바렷는가 경향각지에는 가물 아우성소리가 소란하더니 가울의 발자욱소리와함께 요사히몃칠 소내기가 오다말다하더니 이십팔일저녁여섯시부터 경성지방에서는 밤아홉시까지에 아홉미리가내렷다 인천기상대 경성측후소에서는 비오는까닭을 이십팔일밤 아홉시 다음과가티 대답하엿다

태풍이 충승(沖繩)의 북서이백키로되는곳을 지나고잇끼때문에 칠백이십오미리의 저기압이 서북서로 시속십오키로의 속력으로 움지기는 덕택에 조선의 중부이남은 비가내리고 이북은 흐려잇다 경성지방은 밤새 비가내릴터이고 내일은 오다말다할것이다니 가물은보충할만한비는아니다

忠北 【淸州】 충청북도지방에는 이십팔일 오전여섯시부터 오후한시까지소낙비가 왓는데 옥천(沃川) 영동(永同)지방에는 삼십미리충주(忠州)、괴산(槐山)지방에는 이십삼미리가 나렷다 그래서부분적으로 농사에 상당히 조흔영향이 잇게되엇다

全北 【全北支社電話】 아침 열시부터 전북일대에 비가 내리고 잇다 금번 들어서는 처음으로 줄기차게 시원스럽게 쏘다지는 비다 비는이십팔일 밤새도록내리고 이십구일아침에 개일것이라고하며 해안에는 태풍을경계하라고 기상대에서는 말하고잇다

시골少年을 노리는詐欺
旱災에쪼껴오니도적이반겨

서울로가면 밥버리가되려니하는생각으로 요사히 삼남지방의 한재민이 서울로 만히모혀들엇다함은 기보한바로 한재민의 이약점을 이용하여 취직사기를 전문으로하던자가 본정서에 체포되엇다

이십칠일저녁 본정서원이 다옥정(茶屋町)도전당포로서 나오는 거동수상한 청년을 붓잡아다가 취조하엿던바 그는 지난이십사일 오전여덟시쯤 조선신궁외구에서 전남 이리(裡里)에살다가 한재에쫏겨 서울까지온 김석만(金石萬)(一六)에게 자기는 정자옥(丁子屋)점원인데 배달부로 취직을시켜준다고한후 양복을해입어야 취직이되니 가진돈을 내노라고하여 김소년의 전재산 팔원을 바더가지고 정자옥 정문아페 김소년을 기다리게한다음 자기는 안에들어가서 『짬바-』한벌을 훔처가지고뒷문으로 다라낫다가 이날그『짬바-』를잡히려갓다가본정서원에게 체포된것이다 그런데 이자는이상취직사기와 절도외에삼월(三越)회신(和信)을무대로 취직사기를한혐의가 잇서서계속취조중이다

時計도적

고양군[illegible](高陽郡[illegible])

來一日愛國日 列車食堂自肅

철도국에서는 오는구월부터는 매월일일을 애국일로 정하고이날철도국 경영의각여관 열차식당 구내식당에서는 담배술은일체팔지안키로 되엇다 그리고음식은 협신 간산것을 팔며열차식당에서는 오십전짜리 애국런치를팔기로 되엇는데 다만일일은일요일에하해서는 팔기로되엇

金浦는食水飢饉 共同井戶도모두枯渴

【金浦】 김포지방은 미증유의한발로 큰흉작을 면치못할상태에잇서서 일반인심은 자못불안에차혀잇는중 요사이 김포면일대에는 식수기근으로 크게곤란중에잇다 군소재지에는 인구으만코 정호는모두 고갈상태에이르러 식수부족의 소동은 여전히계속되어 잇다하며 수십여개소의 부락공동정호에는 약간의물이 나오는곳도 잇고 아수 말러부른곳도 만히 잇다 그리해서 관공서 전용우물로 모여드러 물을기려가기때문에 그관청에서도 물이부족하여 엇절수업시 채원두엇스므로 일칭더곤난하게되엇다

愛國貯金의 七月中預金高

애국부인회와 체신당국이 제휴하여 장려강조하고잇는 애국저금의 칠월중 예입고는 이십오만일천륙백오십륙구에 삼십사만이천오백십이원륙십삼전으로 전달보다 일만팔천이백일원팔전이 불엇다 각도별예입고는 다음과 갓다

京畿	[illegible]
忠北	[illegible]
忠南	[illegible]
全北	[illegible]
全南	[illegible]
慶北	[illegible]
慶南	[illegible]
黃海	[illegible]
平南	[illegible]
平北	[illegible]
江原	[illegible]
咸南	[illegible]
咸北	[illegible]

少年牛賊逮捕

【慶州】 경주군내동면 황룡리(慶州郡內東面黃龍里)에는 권영완(權永完)(一六)이란 소년의 삼모자가들어와 비집에서살면서 걸인과가튼 생활을하고잇는데 얼마전에 천군리(千軍里)남판택(南寬宅)의집에 자기아버지것이라하며 두살된소한마리 시가칠십원짜리를 맛겨두엇다는 소문을듯고 내동주재소원이 이십사일 전기남판택의집에갓바 십여세된소년한명이 돌연 도수하므로 어룬들어물어보죽 소는제형영완이가 어디서 끌고온것이라하여 그를다리고 그들의사는비집으로 향하는도중 십오세가량되는 소년한명이 아페서다라나므로 이를오경가량이나 추격하여 부산어부를 그가범인인 전기권영완으로 지난이십일에 뒷산에 매어잇던소를 끌어온것을 자백하엿다한다

兄任을차저달라고

【新義州】 경북 정주군신태인구석리(井邑郡新泰仁九石里)에 본적을둔 김판석(金判錫)은소화십삼년 팔월십사일 본적지를 떠낫는데 그후일년이나 지나도록 지금까지소식이 업다하며더욱이그의부친은 철도공부생활을 하다가 지난칠월에 철도에갈려 죽엇다는바 김판석은 남의상남으로 얼데살림은동생과 여섯살먹은아들을두고 고향을떠낫다는데 겨우열네살된 그의동생은생각다못해 이십일일본보지국을방문하고 그형을차저달라고 애원하엿는데 형되는김판석은어서속히동생을 차저주기바란다고한다

바람때문에落傷

【海州】 지난이십일일 [illegible]씨집에 고용사리하는 박정복(朴丁福)은그날마침소낙비가 오라고할때 바람이 몹시 불엇는데 그바람으로해서 지붕이 빼껴지므로 그를막기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엉을덥다가 그만 바람에날려 땅에 떠러젓다 꼿치료를 밧는결과 생명에는관계업다고한다

避難民과學生들로 關釜連絡大混雜
鐵道局今後의對策을講究中

천진지방의 수재피난민과 경도、동경방면으로가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부산에몰려와기때문에 이십칠일과 이십팔일 이틀밤부산으로부터 하관으로가는 연락선은 두척이나 떠낫는데 그대로 이십칠일은 이백오십명 이십팔일은 일백다섯명이 배를탈수업서 남어처섯다 여름이나 겨울의 학생휴가가튼 상태이어서 여객에게매우 미안스러운점이 만흐므로 철도국에서는 방금이에대한대책을 연구하고잇스므로 오는 겨울에는 해결될듯하다

漢江에女人屍

이십칠일 오전열시쯤 한강인도교아래에 이십오륙세 가량되어보이는 화류계여자모습의 시체가 떠올랏는데 소관용산서에서는 신원을조사중이다

貰노런四十餘戶에 突然明渡를要求
東崇町關係住民들陳情準備

부내 동숭정(東崇町)일백사십번지일대 사십여호는 십여년전부터 동일은행소유로 세집으로나려오던것이데 작년가을 재동정보호 모씨에게 사만여원을밧고팔렷고 그는 다시이것을 신모(辛某)에게 팔아넘겨 새로 집을산사람은 주민들에게 집을내어노튼지 사든지하라고 졸르고잇서 세든사람들은 주래난으로 큰위협을밧고잇다 이집들이 세집으로 나려오기는 십여년전부터이데 이중에는 십사오년동안을 꾸준히 살아온사람들도잇는데 이러케 갑짜기집을팔아 경성부와 경기도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방금준비중에잇다

住民側談 십여년동안 세한푼밀리지안코꾸준히살아오던집을 갑짜기 팔아 집주인들은 어떠한때는 집을 내어노라고 하여기가 막힐뿐입니다 이런는원래사십원(집한간에)바게아니하던것인데 지금산사람은 유신만원에 사가지고우리더러 최저칠、팔십원으로 최고 일백오십원까지내고 사든지 집을내노코라고하니 세집으로살던우리갓흔노동자로서 산다한들 이러케비싼갑슬수고 살수가 잇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한니다

放穀協議會
京城府、百石以上所持者를九月一日召集
正租圓滑配給、上司에陳情

경성부에서는 지난이십일일부터 실시된 쌀갑억제를 게기로 시내의 수급관계가 대단빽빽하게된것을 타개하고자 구월일일 백석이상의 대량소유자를 부청에모아 방곡협의회(放穀協議會)를열어 협력을 구하며 지난십팔일이래 입하가두절된 정조의 배급이원활히되도록 경기도와총독부당국에 조처를 진정하기로 되엇는데 그성과는 장래 경성시내의 미곡수급상 극히수목을 끄으는바이다 부당국에서는 지난이십일일부터 어십석이상 소유자에대하여 재고미(在庫米)조사를 하는동시에 그이후의 수급상황을 조사중인데 매월말평균 십만석의 재고미는 아직은 그리줄지 안헛스나 날마다 사천이삼백석을 정미하는 정조는 지난십팔일부터 전연입하가 두절되어 이대로가면 수급이대단히빽빽하여질것이 판명되엇스므로 대량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조용하는동시에 상부당국의 원활히 입하되도록 요망하게된것이다 정조의 입하가 십팔일부터 갑작이두절된것은 이날부터편업에서 각도매 소매업자에게 이십일일부터 쌀갑억제가실시되는것을 통고한때문이다

"讓二"誘拐犯은 大邱地方法院傷害致死犯人?
春田博士의告訴로意外進展

【慶北支社發】 평양 춘전박사(春田博士)의아들 양이(讓二)의 유괴 용의자를 대구서에서 검거하엿다함은 작보와갓치니와 그 뒤판명된 사실에의하면 이용의자는 새로잡은것이아니라 방금 대구형무소에 수감중인 상해치사피고인것이 판명되엇다 즉그는 얼마전 대구지방법원안에서 동료끼리 다투다가 칼로질러죽인범인으로 동법원사무원 상원이남(上園二男)(二一)이라고한다。 그가 의외에도이사건의용의자로 등장하기까지의경로는다음과갓다

상원이남의 부친은현재 대구지방법원영덕(盈德)지청감독서기로잇고 춘전박사와는 원래 숙친한사이이다 춘전박사의 아들이실종된지닷새째되던날 상원이남은 안동현(安東縣)에 안자서 자기형의이름으로 춘전박사에게 돈삼십원을 청구한일이잇섯고 그때 상원의부친은 혹시 이여석이 당신의 아들을후처가지고가서 협박하는것일지도 모른다고 춘전씨에게 일러주어 평양서원이 안동현까지 잡으러 갓다가 행방을찻지못한일이잇섯던터이엇다 그런데 그가 지금 대구지방법원에서근무중 동료를 죽엿다는 신문을읽고 평양에서 춘전씨가 고발한것이진상이다 그리하여 대구서에서는 형무소에 수감중인 상원이남의 취조를 맹렬히하는중인데 춘전박사의 아들이 업서지던 당시 평양에 잇슨 일은 천혀 업다고 주장하고잇다

竊盜三人組

수원군상안면사곡리(水原郡[illegible]面沙谷里)에원적을둔 전과이범 김연증(金然增)과 부내마포정(麻浦町)이백팔십삼번지 전과이범김억구(金億九)와 부내신당리에원적을두고 주소부정의 여원환(呂元煥)은 서로짜고금년사월십칠일 계동정백오번지 정기석(鄭[illegible]錫)의집에들어가 옷, 철물등, 삼백여원어치훔친것을비롯하여 열여덟번에 이천여원어치를 훔치고 이십칠일오후용산서형사에게 붓들리엇다

두少女溺死

【咸陽】 지난이십사일 함양군병

煙筒山一帶에 腸窒扶斯猖獗

【平山】 일주가지난뒤 기후도완연히서늘하여진 요즈음 연통산(煙筒山)지방에는 장질부사가창궐하여 남녀로소를 물론하고다수환자가 속출하는고로 경찰당국에서는 그방역에 필사적노력을계속하고잇다

大每世界一週機 日本號札幌安着

【札幌電話同盟】 세게일주비행기 『니뽄호』는 이십팔일 오후한시사십오분에 북해도찰황(札幌)에 무사히 도착하엿다

曆

▲八月二十九日(火曜)陰七月十五日▲干支戊戌 ▲日出午前六時十五分▲日入午後七時九分 ▲南中午後零時三十五分▲晝間十三時[illegible]分 ▲月出午後六時[illegible]分▲月入午前五時十[illegible]分 ▲滿潮(仁川)午前五時十分 午後五時二十分

運動

◇單式戰
뿌로밋치 (6 6 … 2 3) 1 미직
캄이스트 (6 6 … 4 3) 2 크클에벡지

濠洲 [illegible] 米國과 相對하기로되엿다

軟式野球準決勝戰績

朝鮮軟式野球聯盟主催의 第四回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大會準決勝戰은 二十八日午後二時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京城對平壤戰、羅津對釜山戰이 열린바 다음과가튼 『스코어』로 釜山軍과京城軍이 今二十九日 午後五時부터 決勝戰에서 戰하게되엇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計
京城	0	0	1	0	0	1	2	0	0	4
平壤	2	0	0	0	0	0	0	0	0	2
羅津	0	0	0	0	1	0	0	1	0	2
釜山	0	0	0	0	0	0	3	0	A	3A

中等蹴球準決勝經過

大每主催의 第二十一回全日本中等蹴球大會準決勝戰은 二十七日午後一時부터 甲子園南運動場에서 열린바 其戰績은 다음과갓다

廣島一中 3 (2 0 1 0 / 2 0 0 0) 0 札幌師範
堺師中學 2 (0 0 2 0 / 0 0 0 2) 2 湘南中學 (抽籤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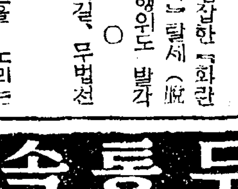
籠球單式戰績

【뿌르스크라인七日發同盟】 예줄인터ー소決勝 濠洲對유ー고戰最終日은 二對一로濠洲가『리ー드』한 뒤를이여二十七日單式二試合을 擧行한바 濠洲는豫想한바와가치 二試合을 『스트ー레트』로이겻다 예줄『차렌지라운드』

◀軟式野球=第四回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大會決勝戰…京城 對 釜山 (南朝鮮代表) 午後五時 京城球場 (觀覽無料)

氣象特報 二十八日午後四時 仁川氣象臺京城出張所發表=大陸沿海部에 北東風이强하여진다 海上에는비도 오게될것이다

今日天氣 …… 曇



협잡한『화란영사』탈세(脫稅)행인도 발각 ○ 여길, 무법선지로 안심야? ○ 한재에밀려온 소년을 노리는 취직『사기한』 ○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는녀석。 ○ 남소선엔 폭풍……오라는비는 안오고 웬 뚱딴지고。

樂壇의登龍門
新人은달려와參加하라!

全朝鮮男女音樂콩쿠ー르

◇課題曲目◇

▲聲樂科
I. Am Meer (海邊에서) 슈ー베르트作
II. Neugierige (懷疑) 슈ー베르트作
III. Plaisir d'amour(佛)(사랑의기쁨) (Placer d'amor)(伊) 마르티니作
IV. O del mio dolce ardor (伊) O de ma douce ardeur (佛) (오·나의情熱을) 글룩作

▲피아노科
Sonata 14 No.2 G長調 베ー토ー벤作

▲바이올린科
A moll konzert No. 1,2,3.樂章 (協奏曲A短調) 비발디作

注意
1 聲樂은 指定曲一曲과 自由曲一曲
2 바이올린은 全樂章·自由曲一曲
3 피아노는 第一樂章만·自由曲一曲

申請期限……九月末日
豫選(非公開)
決選(公開)……十月初旬

審查委員……洪蘭坡·桂貞植·金載勳·安柄玿·李寅善·朴泰俊·鄭勳謨·金世炯·金元福·朴慶浩·李愛內諸氏

主催 朝鮮日報社

カゴメケチャップ (가고메케챱)
最上の品質・最大の売行

名人傳 ▲第一卷七月一日發賣 ▲第二卷八月一日發賣 ¥1·30 〒0·22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두통속치약 / 東京서대평판인
テーリン (테ー리ー)
發賣元 京城 株式會社 新井藥房 / 本舖 東京 中村信治商店

99%の治癒率! 治淋特効劑 G-U-サイド (기유)

興亞實務學院 追加募集 夜學部開設에就하야 [illegible] 電話光一八四八番

眼科專門藥 청명광이 우리나거울이흐려지는것과 [illegible] 外側으로 無代進呈 兵庫縣明石市 進光堂本家

樺太廳初期捕獲 海狗腎直接配給
一人一具以上註文에는不應함

國際的實獸海狗(膃肭臍)의腎과翠丸이 自故로 腎氣補精과五勞七傷에 靈効가잇다는것은 이미天下周知의事實이다。

그러나 實獸海狗는 日本領樺太 米領프리비로푸 露領콤만들스키ー群島等을 그三大蕃殖地로삼고잇스며 關係諸國間에는明治四十五年에『膃肭臍繁殖保護條約』이 締結되어任意의 捕獲이嚴禁되고 다만樺太廳의손으로써 極히小數의海狗가每年一定된期間ー五月로부터九月까지의 四五個月동안에捕獲되는것이다

樺太廳에서는 最初來島한때부터 一個月內外에捕獲한海狗의腎을一等品 그後의것을 二、三等品其他로定하고잇는데

그理由는繁殖活動을 開始한初期와 中期 末期 後期等時期에따라 그根力에 各各天壤之差가잇서 그効驗에도 큰影響을밋치는까닭이다。

從來 樺太廳에서 捕獲한 海狗의腎과 翠丸中高級品…即初期捕獲品은 主로中國市場 特히 楊子江上流地方에 輸出되엇스나 事變發生以後中國市場에 輸出이杜絶되엇스므로 이稀貴한高級品의一部를 國內에서도 配給하게되엇는바 配給할個數에 制限이잇스므로 申込順으로 直接配給케되엇다

(一人一具以上申込에는 不應하고 先金을要함 代金은 振替東京四六一二〇番海狗腎配給所로 拂込할事 但送料荷造先發者에게限하여 代金引換도取扱함)

▼樺太廳初期捕獲海狗腎及翠丸(一等品以外는取扱치안함) 定價二十圓 荷造送料六十二錢

樺太廳捕獲 海狗腎配給所 東京市神田區小川町三ノ二〇 振替東京四六一二〇番 電話神田 二三四五番

特許電氣코로이드製法
滋養 鐵肝油
最高標準의强壯劑 鐵과肝油의完成

鐵과肝油라면 强壯劑로가장조타는것은 누구나다아시는바이지만 鐵은그맛이 甚히흉하고 다님이만 舍되어잇는茶나 牛乳 咖啡等과가치먹지못하며 肝油는異한 臭氣와 不愉快한게는틈으로 服用하기가 極히困難할뿐아니라 胃腸을害하고 重要한榮養素가 充分히攝取하시못함으로 이런貴重한補藥을服用하는분이적엇슴니다。 그러나最近 이런모든缺點을 改良하야 藥効를數十倍强化시키고 婦人이나어린이도容易하게服用할수잇도록만든것이 專賣特許滋養鐵肝油임니다。 鐵肝油는맛이조코 茶 咖啡 牛乳와服用할수잇스며 胃腸의攝取가빠름으로 服用한分의全部가곳 血과肉이되여血色이조와지고 體重이늘며 抵抗力이强한 健康體가될수잇슴니다

一個月分(一五〇瓦) 一圓八十七錢
德用瓶(五〇〇瓦) 四圓八十錢
請求次第試用藥說明書無代進呈

東京市深川區佐賀町 工藤商店藥品部
代理店 京城 新井藥房 釜山 藤田藥舖 馬山 石見屋

キス スアパラガス (스아파라가스)

近代人의 必需食品 全國有名食料品店에잇슴
東京 京橋 伊藤精七商店

補缺生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 京城中等專修學院 京城府[illegible] (電話本五、三六〇)

中部版

仁川府會召集

【仁川】인천부에서는 오는삼십일 오후일시부터 부청제이회의실에서 부회를소집하고 다음과 가튼의안을 심의키로 되엇다

議案

一、昭和十四年度歲入出豫算追加의件
一、仁川府工廠用地造成費[illegible]立[illegible]件
一、府[illegible]條例改正의件
一、基本財産인 不動産賣却處分의件
一、不動産賣却處分의件
一、仁川府花水町及萬石町地先[illegible]立埋築及[illegible]工事[illegible]計畫變更의件

一般農家에도 三個項目을奬勵
始興郡旱害對策委員會에서

【始興】시흥군한해대책위원회(旱害對策委員會)에서는 재해민구제에 만전을도모코저 각종구제책을 세우고 착착그준비중에잇다함은 상보한바와갓거니와 다시동위원회에서는 일반농가에대하여 다음제항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장려하게 되엇다

(一) 잡업(雜業)조정에관한건 동군농가는업으로가장에적당한 가마니 거적등은 금년과가치 한재가 극심한때에는 그구제대책으로 일층장려할 필요가잇슴에비치어보아 다음가튼방법으로 집의소비를 제한하여 조정을 도모하게되엇다

(가) 현재가지고잇는집과 금년에 생산된집은 특수한사정이업는한에서 부업의원료로충당할것

(나) 축우의 사료(飼料)는마른풀과 콩깍지를쓰고 보족하게 만 집으로보충하도록할것

(다) 집웅이우는것은 특별한사정이외에는 금년은 중지할것 필요한이에게는 실지를조사한후 이것을인정할것

(라) 집등공정가격을 정해서 필요자에게구매를알선하여 적극적으로 생산확충을도모할것

(二) 대맥(大麥)장려에 관한건 한발피해지에대하여는 천후의 회복을따라 채소를장려하는것 도조호나 대맥은농가에 중요한식량일뿐아니라 시국작물(時局作物)로써 중대성을가지고잇는데비추어보아 지질파수리의관계를고려하여 가능지(可能地)에대하여는 종자와비료등을알선시키어 대맥을심도록 장려할것

(三) 민심동요방지에 관한건 금년은 미증유의 한발로인하여 자칫하면 민심이동요되어 스스로이것을 극복하라는 의기를상실하고 만연히도회지나 또는 공사장으로 나가려고하는사람이만흐므로 될수잇스면 한해대책시설요항을 충분히주지시키어 이런것을 방지하고 자력갱생의 목표인 부락진흥회조대의 목표인 부락공려(部落共勵)와가치 협동의정신에의하여 인보공조(隣保共助)의 관념을강조하도록 지도할것

朝鮮製鋼所員이 鑛山機械로挾雜
豪遊타가仁川署에被捉

【仁川】인천부해안정(海岸町)금강(金剛)『아파트』에 현주를둔조선제강소(朝鮮製鋼所)노무계(勞務係)원인 송미실(松尾實)(二七)은 지난사월경부터 부내부도정(敷島町)에잇는대흑루(大黑樓)란 유곽에잇는소태랑(小太郎)이란창기한테반하여 밤마다 등루하여질탕하게 노는것을 인천서원이탐문하고 수상히녀여 잡아다가취조한결과 이자는 전기회사에잇는것을 기회로되이고 평양부선교리(平壤府船橋里)에잇는 조천철공소(早川鐵工所)주인을 알게되어 제강소와 취인을하는당사용기계를 이자가마다서 사드린다고 착게사서는다시철공소에 비싸게 팔아서 전기와가치 주색에탐혹한사실을 자백하엿는데 여죄가 만흔모양으로 계속문초를하는중이라한다

漁業用物資擴充
關係者卅餘名이會合
調査協議會열고對策講究

경기도에서는 어업(漁業)에소용할 물자의 확실한수짜를 조사키위하여 이십팔일 오전열시부터 도청제일회의실에 관하각 군수산기(産技)와 각어업조합간부직원 삼십여명을 모아노코 이일에대해서 여러가지로 협의를하엿다

李寅善獨唱會
盛況으로終幕

【仁川】이인선씨 음악후원회주최와 본사 인천지국후원인 이인선씨 독창회는 예정과가치지난이십일일오후팔시반부터 인천공회당에서 열린바 정각전부터 모여드는 관중은 칠백여명으로 독창회로서는 인천서처음보는모임이엇스며 곡목마다 만장을 울리는 박수성은 우뢰와가탓다 아홉시반에 곡목전부가끗나고 뒤이어 이인선(李寅善) 이경희(李慶熙)양씨에게 생화를증정한후 곡목후부에들어가 일반관중은 자리를 떠날줄모르고 박수와갈채로 열광적감탄을마지아니하엿고 이경희(李慶熙)씨의『피아노』반주는 금상첨화로 이독창회를더욱빗내엇다

登記所出張所는 烏山이가장適地
南陽設置說에住民反對

【烏山】경성지방법원 등기소출장소위치문제는 오산에 둘거시냐 남양에둘거시냐는 문제에잇서 근간돗는말에의하면 남양(南陽)에다 위치를둔다는말에 대하여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라하여 오산시민일동은이요 삼개읍군아성평택용인(平澤龍仁安城)에수만면민들은 일대추궁중이라는데 내용인즉 오산이라면 호주가천여호로 인구가이만에가까운 수짜를나타내고 잇슬뿐더러 시장위치가 수원읍에서 이리를너머저 평택읍과 안성읍 용인군 삼개읍군에 접경으로 교통이사달오통되어 자동차가 일일삼사회씩 용인과 발안을통해 조암장(朝岩場)으로 평택안중장(安仲場)북면을 통하여잇고 안성읍과 경남 발산(鉢山)은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 도로를 개수중이던것이 근일 도로가 완성됨을 따라 곳통행할것으로 보이고기차도는 부산서경성간중앙인 오산역으로 자동차교통은 충북조선에 편문파충주가되어잇고 관공청으로는 경찰관주재소로 도다지방과 달라동탄면 성호면양면을 편할하는만치 경부보(警部補)를 둘만한곳으로 당국에서도특별 경찰로지방에 경험이풍부한 구천정기(溝田正己)씨와 위인강대식(康大植)씨로 전시체행정으로는 면장으로 지방에권재에중요처리를원만히 행하고잇스며 금융조합이 두곳으로 오산금융조합과 오산제이금융조합이잇서 제이금융 조합에서는 용인군파 평택군일부를 따라농촌개성에 지력하고 잇스며 교육기관으로도 공립으로 성호소학교 오산소학교로 고등소학교까지잇스며 중학교 정도로는오산농업실수학교가 잇고 강습소로는 삼미의숙(三美義塾)양산강습소(陽山講習所)광성학원(光成學院)사오처기 잇고 기타 검사소우편국 전화중계소(電話中繼所)각은행 출장소와 대리점 회사합겨서시 따평파기관으로도 타도시에 뒤지지 안흘만치 다되어잇는 오산시상에다 등기소출장소 위치를 두지안코 수원군에 일게면밧게안되는 남양에다가 경성지방법원등기소 출장소위치를 말하다는것은 당국의 의견을 도저히 알수 업다하여 오산시상의 삼개읍군에 수가편인 오산에두기를 갈망한다고한다

月岩小學校
李校長記念碑除幕

【伊川】강원도이천군동면(伊川郡東面)월암(月岩)공립소학교 교장이석면(李錫冕)씨는 부임이후 일반아동교육은물론 일반면민들의 계몽운동상등히 공헌이만흐며 면민의전적신념을바드며 더욱이 학교시간의 여유를이용하여 친히면민의교화에 노력하여 현재 동면내의가정부녀자들은거개 언문(諺文)을해득케되엇고 자기가친히 농촌진흥회장으로 농촌개발에 헌신적노력을다하여 미신타파 농사개량근검저축 도박폐지등으로 일일히 이교장의공적을 매거키어려우므로 동면유지들의발기로 영구히후세에전코자 지난이십일일에 이교장의기념비제막식을 성대히거행하엿다는데 학교교장으로 기념비를세우게된것은 월암소학교이교장이 이천군내에서 처음되는 성사라고한다

女子는勞働者로
男子는박물장사

【金浦】근일 김포지방에는 전에 넘지못하던 수의 마목장군의 행색으로 문전걸식하는자가 상당히모여든다는데 그들은 대개 남조선지방사람으로서 금년한발에 폐농을당하고 먹을것이업서 자기고향을떠나 남부여대로 살곳을차자다니다가 남자는 노동판으로 여자는 박물장사꾼으로 각기 손을나누어가지고 그와가치 돌아다니는 한해민들이라한다

開城署에서도 落書를調査

【開城】요즘개성부내에는 시국을 인식치못하는 사람의 극히 악성을띠운 조언비어와 또는터문이업는 낭설이 성히 떠돌아부민을 미혹케하고잇스며 각처공동변소에는 입에담지못할 더러운낙서가 만히씨워잇다 이를발견한 개성서에서는 풍교상소치못한 이런악풍을 업시하기위하여 특별한 감시를하고잇다는바 적발되는대로 엄중히 처벌하리라한다

收養女에暴行
장작개피로亂打重傷
開城署에서摘發嚴調

【開城】일찌기 개성서에서는불법게약에 유린당한 수양녀들을 구출하는동시에 악덕포주 숙청운동에 만전을다하고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팔일 또 악덕포주한명이 개성서에 또적발되엇다 부내대화정(大和町)사는 이덕봉(李德鳳)의딸이옥순(李玉順)(一二)은 작년십이월 십일일남본정(南本町)오천(烏川)술거리임상옥(林上玉)음식점에 수양딸로가서 어린몸이 쓰라린고용녀 생활을 해오던중 지난삼일옥순이가 사소한잘못이 잇다는이유로 장작개피로 무수히란타하여 십일간 치료를요할 부상을입혀신음케 하엿다 요즘개성서에서는이 사실을 탐지하고 전기악덕포주를 소환하여 엄중취조하는 동시에 치료비 상환여부 유하는동시에 치료비를선무하여내게하라고엄명하엿다

淸州에假僧出沒
婦女의金品騙取

【淸州】최근 청주시내에는 삼십여세가량된 청년두명의 가짜승(僧)이 출몰하여 우매한 가정부녀의 금품을 편취한사건이잇는데 상세한것을 드르면 전기두청년은 중으로변장하여 청주화천정(和泉町)용화사(龍華寺)에 잇는 중이라하며 시내각가정에 남자가 업는틈을타서 가정주부에게 집안식구의 생년월일을 물은다음 불공을드리여야만 장래에 복이돌아온다 하며 백미또는 금품을 다수편취하엿다는바 이사실을 탐지하게된 청주서에서는 전기범인을 검거유치한다음 취조중이라는데 피해액도 상당하리라고한다

三券番妓生들도 愛國班組織運動
節酒實行에도協力

국민정신총동원 경성련맹에서는 매달초하룻날에 실시하는애국일행사에요리업, 여관 음식점의협력을 구하고자 이십팔일오후시부터 경성부청 부윤응접실에서업자사십여명이 모여 협의회를열고 좌기각항을 협의결정하엿다

▲각업자는 절주를 여행하는방법으로서 가락사개, 테-불크로쓰 기타에 헌수폐지의문구를 인쇄하여 철저히 선전할일
▲애국일에는 일채주의(一菜主義)의취지로 반찬도 극력간단히할일
▲기생의 정신총동원을 실현키위하여 조선, 한성, 종로세권번별로 권번애국반을 조직할(내지인측은이미조직되엇다)

苦草盜賊이橫行
싸게팔다가本色綻露
仁川署에서兩名을檢擧取調

【仁川】양주군(楊州郡)에 본적을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권성근(權聖根)(三〇)은 지난이십칠일오후아홉시경에 부천군문학면승기리(富川郡文鶴面承基里)에잇는 구연웅(具然雄)의소유 고초바테들어가서 풋고초중원이십전어치를훔처서 인천으로 가지고와서 길거리에서 마싸구려를 부르기에 순행하던 순사가보고 지금 고초의시세로보아서는 그러케싸게팔리가 만무할것가트므로 붓잡아서 본서에데려다가 취조한결과 전기사실을자백하엿다 그리고 부천군남동면발산리(富川郡南洞面鉢山里)에 현주를둔 공병호(孔丙鎬)(二三)도 지난이십오일 오후다섯시경에 한동리에사는 최흥수(崔興洙)의 집웅에고초를말리는것을 한가마니를 절취하여 인천부영정(榮町)길거리에 허러노코 싸게팔다가 인천서원이 지나가는것을보고 도망하는것을 체포하여 문초한결과 전기사실을 자백하엿다

冷味얼이운溪谷 ([illegible])

(리질약) 征痢トニク
效能 腹痛(배앞흔데) 裏急後重(뒤보구십흔데) 粘液便(곱똥나오는데) 血便(피똥누는데) 一般下痢症等에 特效
京城府鍾路町一四ノ一 泰永製藥研究所

香氣넘치는머리……자랑할머리
그것은金鶴이맨든머리!
金鶴香油

ニキビ 여드름
뾰로지에
ユキワリミン
말보다證據……
이케뭇한藥用中에 効果百퍼-센트의 유끼와리藥草의精分이含有되여잇다. 더욱 바탕에서부터아름답게하는 精分이다.
여드름뾰로지로……
悲觀은無用 유끼와리밍으로깨끗하고말쩡이
五十錢·一圓
藥店·化粧品店 데파-트에잇슴
東京·芝·高輪 原澤合名會社

弱體強化 VIKURA
積極的强壯劑 ビクラ 비구라
비구라는全身의神經系統을노피고, 食慾을旺盛케하며 榮養을增進하여, 貧血을살治療한다。따라서에네루기ー補給에 著効가잇스며 疲勞를速히回復한다。病弱一掃, 一般身體 狀態의 改善에極히有力한强壯劑이다。(說明書進呈)
適應症
心身의過勞, 神經衰弱, 食慾不振, 結核, 肋膜炎, 腺病質, 重病後及手術後의恢復期, 新陳代謝障碍, 榮養障碍, 精神減退, 四肢冷感等
【シロップ狀液劑】 二五〇瓦 一圓五〇錢 一瓩入 七圓八〇錢
岡山市紙屋町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林源十郎商店
全鮮有名藥店에販賣함

누구시든지 부드럽고 第一아름다워집니다

高尙하고청초한향훈!
눈에띄일만한효과!!
레-도구레-무를愛用하사면 누구시던지 눈에띄울만치 살결이아름다워집니다 레-도구레-무는 發賣以來數十年의 貴重한經驗에서 제조된 世界에第一조흔信用잇는化粧品입니다 그리고 婦人의化粧에도…… 男子의面刀後에도…… 참으로理想的입니다
一、살결을아름다웁게하고
二、化粧바탕을조케하고
三、面刀後에곡이서야할것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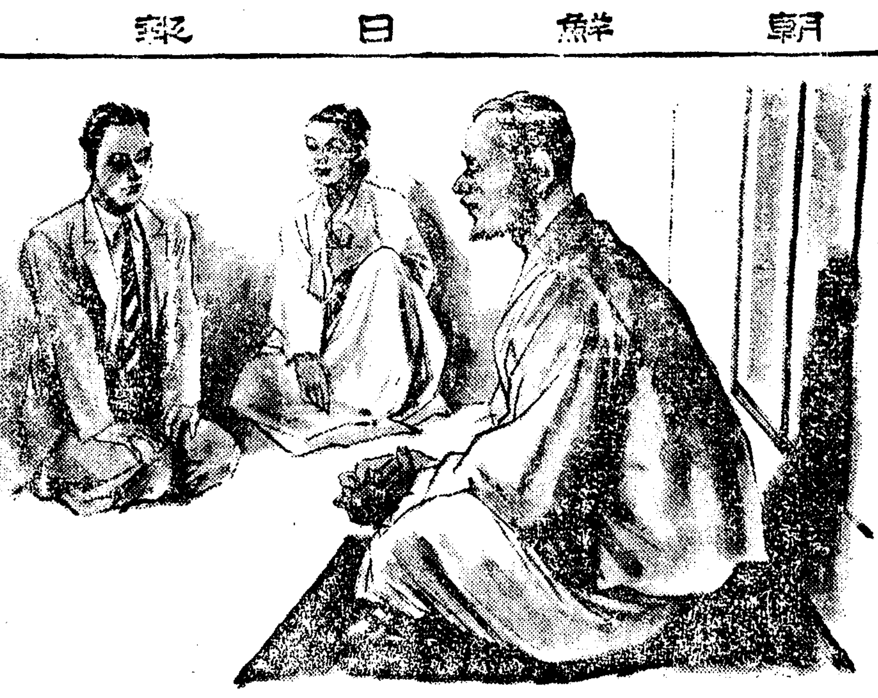
淋疾化學療法劑

純正의 二基劑 ポレオン錠 포레온 「日染」 NISSEN
內服에依하야 短期에百發百中으로根治되는 純正의 二基劑가發明되어읍니다
오늘날에잇어서의 全世界의治療界는 一個의「스루혼아미드基」를 가지고잇는「파라아미노벤졸-루스루혼아미드」즉「스루화니루아미드」劑가 런대여 簇生하고잇읍니다 그럿치만 이「스루화니루아미드」를 淋疾에다 應用할경우에 分量을 많이먹어야됨으로, 中毒症等의副作用을 일으키일염려가잇으며 또 感染된直後의急性淋疾에 對하여서는 특효가잇사오나 罹病後約十日가령 經過되어서 亞急性으로移行된림질이나 또는가장難症이라고하는 慢性淋疾에對하여서는 充分히滿足할만한 好成果를企待키어려운遺憾이잇읍니다
그러나「포레온」은 이러한點을深思하여 처음부터 淋疾治療를 目標로써 錠意研究하여 完成된 二箇의「지메루基」를 가지고잇는 가장優秀한純正內服化學療法劑로써 지금까지는결대로보지못하든 淋疾의化學療法에劃期的一大飛躍을 일으킨것으로써 梅毒에對한六〇六號의特效와 對等한治効가잇다고 絶讚을받고잇는바입니다
◇「포레온」의三大特徵
一、內服에依한淋疾의完治
二、治療期間이엄청나게短縮된것
三、副作用이 절대로 없은점
【適應症】
淋疾 淋毒性攝護腺炎 淋毒性副睾丸炎 淋毒性子宮頸管加答兒 其他淋毒性子宮附屬器炎 淋毒性關節炎 炎衝性尿路疾患 腎盂炎 膀胱炎 葡萄狀球菌性疾患 즉乳腺炎 淋巴腺炎 蜂窩織炎 疔 癤 癰疽「후룬구로-제」化膿性骨膜骨髓炎等에특효함
약가 二〇錠 四圓三十錢 一〇〇錠 拾九圓
全道有名한藥房에서販賣합니다
總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發賣元 株式會社 稻畑商店 大阪市南區順慶町二丁目
製造元 日本染料製造株式會社 大阪市此花區春日出町

長編小說
사랑의水族館【24】
金南天作 鄭玄雄畵

破滅의詩 (六)

마호가 차차 갓슴내、그의 백부 김지석(金志錫)장로는 사랑에서 아침상을 물리고 잇섯다。조카의 절을 밧고나서
「아침차에와나?」
하고 뭇는다。
「새벽세시차에 내렷습니다。」
「평양엔 가보앗니?」
「지금 막다녀나오는 길입니다。」
「음ー」
하고 반백이진 머리를 수여수이다가 다시한번 [illegible]해서 타구에 배앗다。
「오늘은 좀 어떠든? 면세가ー」
하고 그는 적막하게 다듬은 수염을 수건으로 씻으며서 뭇는다。
「별자도가 업스신가봅니다。」
김치선장로는 무릅우에 두손으로 경건히깍지를끼고 아찻더니
「들어가서 큰어머니 뵈옵구… 가치 나오너라!」
하고 광호에게 안방을눈질하엿다。무릅를꿀코 아잣던 광호는 백부의 시키는대로 하엿다。커다란 사랑 아래人목에 오자



단정하게 안자서 장로는 눈을 감앗다。그리고는 늘하는 버릇으로 속으로 성경구절을외엇다。
「스스로 미더 저이가 올흔줄 알고 다른 사람을 모두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를베풀어 가라사대 두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새 하나는 바리새교인이오 하나는세리(稅吏)라。바리새 교인은서서 스스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느님이여 내가 감사하옵기는 나는 다른 사람과 가치 토색하고 불의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세리와 갓지도 아니 함이니이다。나는 칠일에 두번씩 단식하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나이다。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감히 눈을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두드려 가로되 하느님이여이죄인을불상히 여기소서、나는 죄인이로소이다。내가너이더러이르노니…대개 자기를 노피는 자는 나저질것이오、자기를나추는자는 노파지리라。」—
그러나 이런 구절을 외며 자기를 바서한뒤에도、그는 다음과 가튼 구절을 잇지는 아니하엿다
「이나라 백성은 입으로 나를 공경하되、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잇도다。」
그의 얼굴에는 홍분의 혈조가 나타나는듯하고 엄격한 그의 표정에는 의분에 다는듯한 범하기 칠든 비치 풍겨 돌앗다。
백모와 함께 광호가 사랑에 나왓슬때、김장로는 눈을 떳스나、바른손으로 자리에 펄히업드리라 손짓하고 다음과가튼기도를 시작하엿다。
「…헤아릴 나위도 업는 정은 인지(人智)가 사람으로 하여금 수를 멀리하지 안케 돌보아 주시옵소서。파멸의 연구가 주의 뜻에 어그러지지 아니하시되 호기심에 북다는 어린 청소년의 지능우에 그릇되게 끼치는 해독이 업지 아니하오니 주여 굽어 살피어 주시옵소사 공연한 자존심과 신앙의 동요와 쉬운허영심에서 어린 양의 무리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카자식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사 그의 적은 지헤어 기퍼짐에 따라 다시주의아페 업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병고에 잇사와 하느님을 구하옵나니 주여 내려다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사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을 불상한 자식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리게하는 자식이되도록 시일을 허락하시옵소서 빌 공로는 업사옵나다。오직 예수그리스도의 공로를밧들어 기도올리나이다。아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잇사옵나이다。아멘。」
기도가 끗나자 부인은 광호에게
「너 참 아침은 어디서 먹엇니?」
하고 뭇는다。
「조반은 인제 집에 가서 먹겟습니다。」
「해가 나지 돼 가는데 언제 집에가 먹다니 거 시상해 쓰겟니!」
「집에가 먹겟습니다。」
하고 사양하는 것을 장로가 손으로 제어한 뒤에 그는 나죽히 이러케 말하엿다。
「한번 하느님을 배반햇스나 다시 문을 두드릴 날이 차차 올줄 알앗더니 그런 시일을 하느님이 랑순이젠 허락지안흐시는가 보다。」
근엄한 그의 얼굴이 잠시경련하는 순간、그의 두눈에 반짝하고 빗나는것이 보인것처럼 광호에겐 생각되엇다。

라디오 프로
八月二十九日(火)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七時三十分 氣象通報 家庭
▲十一時二十分 家庭時間 [illegible]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illegible](레코ー드)
▲同零時三十分 뉴ー스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十分 라디오學校 「구두지만할수잇는단락간」 博士 百
▲同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猶太人이야기」
▲同七時三十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大) 管絃樂 大阪放送 交響樂團 指揮 에마누엘메텔
▲同八時三十分 西道雜歌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四、山念佛 五、자진배다락거 金[illegible]
▲同九時 浪曲 「赤穗義士傳」(二) 金振九
▲同九時四〇(東) 時報 뉴ー스
▲同九時三〇 뉴ー스解說 氣象通報 明日番 豫告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金[illegibl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大) 合唱
▲同八時(大) 管絃樂
▲同八時三〇分(東) 時局講演

主人일흔春靑座·豪華船 新舘主와萬事O·K!
▽—改裝東劇·九月에更生公演

시내의 유일한 연극전문극장 동양극장(東洋劇場)이 배구자(裵龜子)씨로부터 지난칠월초순경에 드디어 극장건물과 및경영권이 시내 명륜정(明倫町)고세형(高世衡)씨에게로 완전히 매도되엇다함은 이미보도하엿고 따라서 전일의 경영권을 잡고잇던 최상덕(崔象德)씨와 사십팔명의 채권자단을 싸고 도는 법률관계가 자못 복잡다단하든 후의 분규사건은 본지석간 이면을 통하여 누차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와 동시해서 일반의 흥미는 파연 아프로 동극의 전속극단인청춘좌(靑春座)와 호화선(豪華船)의 귀취가어찌될것인가 하는것이엇다
▼……▲
아닌게아니라 지난 이십사일로서 극장건물과 동시에 경영권 일체가 고씨에게로 넘어오자 우선 내부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것이 황철(黃澈)차홍녀(車紅女)등 간부배우를 중심으로한 청춘좌엿다
청춘좌란 이름은 이미고씨에게로 넘어갓다할망정 예정영수최씨에게대한 정의를 생각한들 그냥 새판수 고씨의 경영바침아래에서 흥행을 파연 계속할수 잇느냐하는데 전원의 협의는 충돌되어、드디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두가지의 결론을 맷게되엇던것이니 하나는 동양극장에서떠나 자립적으로 새극단을만들자는것이엇고 다른하나는 이왕 새수인에게 팔린바에야 고까로 팔리자는것이 그것이엇다 이러한 대세로 끌어내려오다가 드디어 지난이십육일 오후한시에 동극장에서 직접고세형씨와 제일차의 회견을 하게되엇던것이니 당시의그들의 요구조건은 총대로 사용하여오던 월급제도를고치어 집단적으로 매월사천오백원의보수로 하여달라는것이엇다 그러나 이러한조건으로는 결국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엿던관계로 결렬되어버리고 다시금 지난이십칠일 오후한시에 역시동극장배우실에서 제이차의회견을 하게되엇던것이니당일 청춘좌대표들의요구는 잠시 타협을 중지하고 십이일간//청춘좌//의이름을 빌려주면 지방순회공연을 갓다와서 협의를하겟다는것이엇다 이에고씨로서는 그리하여주겟스니 순회떠나기전에//동양극장//과 확실한계약을 맷구가라고요구하엿던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쌍방의 의견은 다시결렬되고말앗던것이다 그러나 타협은 성립되어 지금에이르러서는 다만 배우들의 개인적 대우문제에대하여 쌍방의 충분한 이해아래결의안을 작성하기에 매진하고잇스며 따라서 고씨측에서는 이미 극장수리에 착수하여 늦저도오는구월초순에는 문을 열리라하니 이로써 말성만튼 동양극장의 청춘좌와 호화선의 수고씨대청춘좌와 및 호화선의 교섭은 일단락을 짓게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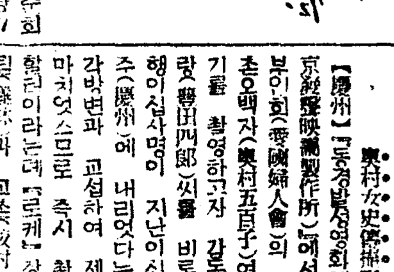
나의 餘興種目
朱仁圭와『쏠베지송』

『배우·주인규(朱仁圭)』는 언제나 명랑하고활발하고 재미잇다。그러나『인간·주인규』는 언제나 침묵을 즐기고명상을찻는 습관이잇다。
그러므로 요행 그를 여흥장소에 끌어내는 경우가 잇더라도 그의 이러한 침잡한성격의 열쇠를 잘 잡아야한다。그러치안코는 그는 결코노래를 하거나 웃지를안는다 그러나 결국『인규』는 오늘의 공통적인 낭만파(浪漫派)의『액터ー』다。술이돌아와 얼굴에 불그레 취색이돌고 마음이 흥청흥청하여지면 그는 남의 주흥을 기다리지안코 곳 잘 노래를 힘차게 뽑는다。

그것은 유명한『쏠베지송』임을 이곳에 비밀히 알려둔다。

=東寶『로케』隊入慶=
『夢婦』創設者 奧村女史撮影次來

【慶州】『동경발성영화제작소(東京發聲映畵製作所)』에서는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의 창설자오촌오백자(奧村五百子)여사의 전기를 촬영하고자 감독 풍전사랑(豐田四郞)씨를 비롯하여 일행이십사명이 지난이십칠일 경주(慶州)에 내리엇다는바 이미 각방면과 교섭하여 제반준비도 마치엇스므로 즉시 촬영을개시하리라는데『로케』장소는 게림(雞林)과 교촌(校村)최씨가의 부근을 비롯하여 포석정(鮑石亭)등으로 [illegible]등으로 당지의『로케』는 오륙일간에 마치고 대구(大邱)와 밀양(密陽)등지로 떠나리라한다。(사진은『로케』隊一行)



協同藝術座 機關誌『舞臺』發行

시내협동예술좌(協同藝術座)에서는 연극실천을하는일방、동좌의기관지로서 순연극잡지『무대(舞臺)』를 오는 구월일일부터 발행하리라는데 편집책임자는오송운(吳松雲)씨로서 아프로 매

海外短信

비로 발표하리라한다
▲『이지·미란다』의『파라마운트』회사의 차회 작품은『퀸즈·모ー리스』감독의『떠이여몬드는위험!』이라는 작품으로도 결정 활월 순순에촬영을 개시한다고。
▲세계 만유를 끗내고 요즘에 귀미(歸米)한『윌리암카ー리ー』감독의『와ー너ー』에 잇서서의 시작은 매독치료약『살발산』의 발견자로서의화사상에 불멸의이름을 남긴『에ー릿히』박사를『에드워ー드·G·로빈손』주연으로 제작하게되엇다고。
▲오래전부터『유니버ー살』회사의//씨내리오·라이터ー//로서 활약하엿스며 최근에이르러서는『오ー케스트라의소녀』로서『히트』를갈긴『쩨임쓰·말호사ー』는 얼마선『비발리ー힐』자택에서 심장마비로서영면하엿는데 나이는 올에겨우마흔넷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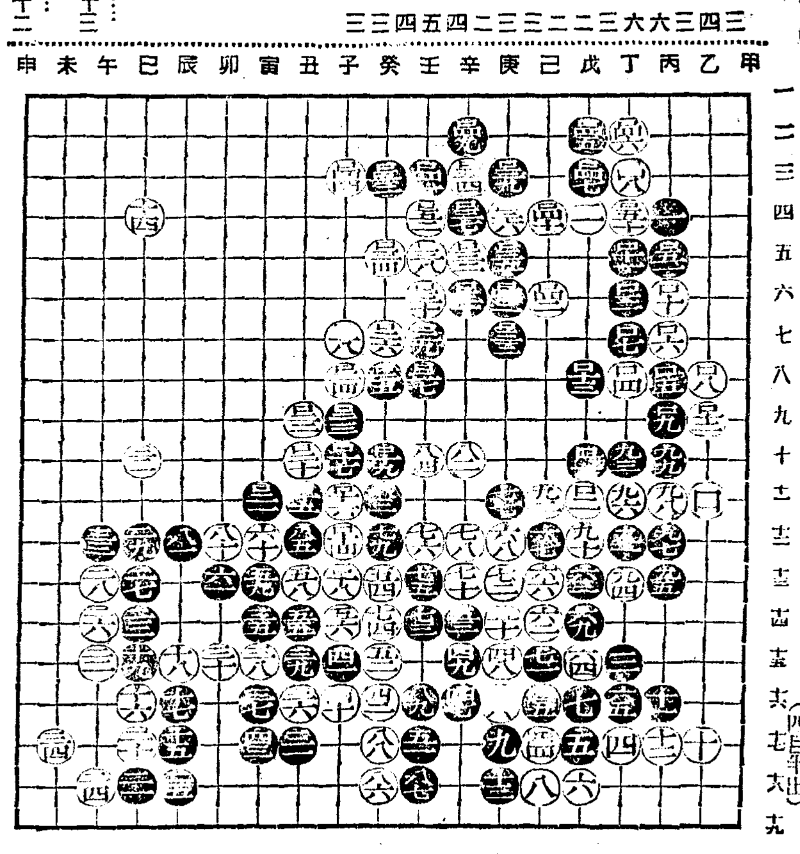
얼른한 생선지지미를 생각하고 잇는가 물르니 지지미는커녕 자반 차토막도 업다는게다。그러고는 바짝마른 상어도막쪽 볶어과자 맥주안주 한접시 시컴언 열무김치 한보시기 그리고 굳노픈 유리꿉부 셋노인 개다리소반을 내어놋는다。
주인마누라가 인사를 채리느라고 위선 청순배를 부으려고든다。그런즉 궐녀는 시칠북따고 수전자를 바다들어 좀 망서리는듯한 눈치가 보이더니 내잔에 먼저 수르르따르고 다음에 박가의 잔에붓는다。내가 이빼서 그랫스리요。말하자면 저는 박가의편이라 나를 손님으로 모시는 꼴이다。
『초면에 실례지만 한잔 드시지요。』
나도 술산바든 갑술하느라고 궐녀에게 한잔권햇나。
『그래 이거저거 가릴것잇소。한잔하구료』
박가도틈고 일어나는것을
나중에는 무슨짓을 할셈인지 궐녀가『아이머니나!』소리를 치며 주전자를 두손으로 밀칠줄 알앗더니 웬걸!
『아이 고만…그러케못먹어요』하고 술한잔은 손이 저편으로 도망질친다。말씨가 전라도 경기도의 짬뽕인것이색다를뿐더러 얼굴이야 감으잡잡할망정 쌍거풀진 서글서글한 눈파 하ー얀 이빠리가 제법귀인성스럽다。나는 어여바군의 염복을 축하하는 뜻으로 한잔 권햇다。그러즉 바른 인사채림으로 내게권하고 나서 또 마다는 궐녀의 잔을 구지 채워놋는다。
쑥스런 소리지만 술이란별것이다。평소에 숙녀아페서는 온 전신이 스물거리고 황송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땀할때에 목쳣이 늘어져 발음이 재대로 안되고하는 본인로빈손이 어쩌면 그리 쾌활해지고 명랑해지고『토ー치칸』심상이 되고 하는지 모르겟다。

"惡友美人計를써 余를觀相쟁이로몰다"
南信丸고동소리왜안나는가?
⑮
文·寫·畵…金熊超

이술이래야 목포에서 만들어내는 한되에 일원안짝간다는 찔찔한 술이다。이술 두어곱보에 차자가 축축히 저저 찌르르한 반응이 생길때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햇다。
박가 저도 별수업겟지。그러나 나와 좀 다른점은 그의 두부(頭部)가『토마토』처럼 새빨가케 익은것이다。어찌보면 너무익어서 금방 터저서 쭉겨질듯한 여주갓기도하다。
『웬 괴가 그리만소。열칠년이 돼서 그런게지』
나는 이러키 비꼬죽 박군은 옥토끼가튼 눈으로 나를말끄럼이 보면서
『웬술이 그리세오』
하고 번드시 누어버린다。그리고는
『기위 여기서 만낫스니 저각시 관상이나 숨박수구료』
하면서、장히 진하게 간청을 한다。
『술자리에 먼저 눕는것도실례데 게다가 이걸무슨뭡쓸소리요。그래 내가 관상쟁이란말이요?』
관상쟁이 뭔시 사수가 뭔지 모르는 나라 결쩍 될박계업다。그러즉 박가란 작자는 심술궂게도 자꾸조른다。
『그러지말고 한번 보아보지 뭘 그러우 재수두엇다 이런때 써먹지 뭐하겟소』
『글쎄 여보 내가 관상쟁이요 뭐요』
『글쎄…내가 노형을 어디 정말 관상쟁이라고해소。친구간에 작란으로 한번 해보라는게지…여보 이각시 줄줄라보 이손님 곳잘마처』
박가는 목포축사에서 나한테 토신자라는 소리를 들은깜이잇서 이러는게다。

國手對抗大將戰
逐馬虛築萬里城
黑은鵲巢鳩居를經營

【11】
白 盧史楚 ★ 黑(先) 權秉郁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illegible] 庚의三 … 辛의十二

鵲巢之形은 彼我가 되지안흠기 白의老練한 餘風으로臨機應變을 잘 할술로 밋는바이다 黑一三九는 庚의三으로 白一四〇을 도로 肉迫하니 白으로서는 可憎다 안총수업다 그러나 逐馬를하고 다음期를 기다리게 되엇다 黑은또 干의三으로 辛戶를 짜니 白은子의二로 逐馬回避를 꾀하나 黑이다시 戊의二로 小斜走를하고보니 白은 도로 [illegible]이 十分危急하다 이때白은 百戰의 餘烈로 當하야 白은 丁의 二로 막바드니 이는 아마 背城一戰을 意圖한듯 自用兵術에 怯난다 黑이 따라 順流而下하니 旗鼓를 [illegible]이라 다시 赤壁水戰이 演展되다 白도 不辭寸步하고 不日決戰하던 風味가 至今에 各生을 爭主하고 곳 避하니 막 追擊을 할가 하나 黑은 는 護陣으로 돌아갓다 참 可惜할진저 黑이 庚의二로 午字形을 施用하니 白一五〇도 어찌할수업기에 丁의四로 連結을 取한다 黑도 癸의五로 잇는것은 勿論이고 白이 壬의四

自戰記 權秉郁

이 中央黑大馬를 모라나오는 그反映에 形勢가 마치 虛築萬里城처럼 되엇다? 그 因果로 黑은 도로 까치집을 비들기가 뺏는것과 다름업스니 黑의 無厭하믈 自負하노라모두가 우승나라로 들어가고말앗다

補陽補陰 精力丸

ソンチリン [illegible]

白頭山特産品 ツルチュク

힘안들게아기낫는약 安産湯
天省堂製藥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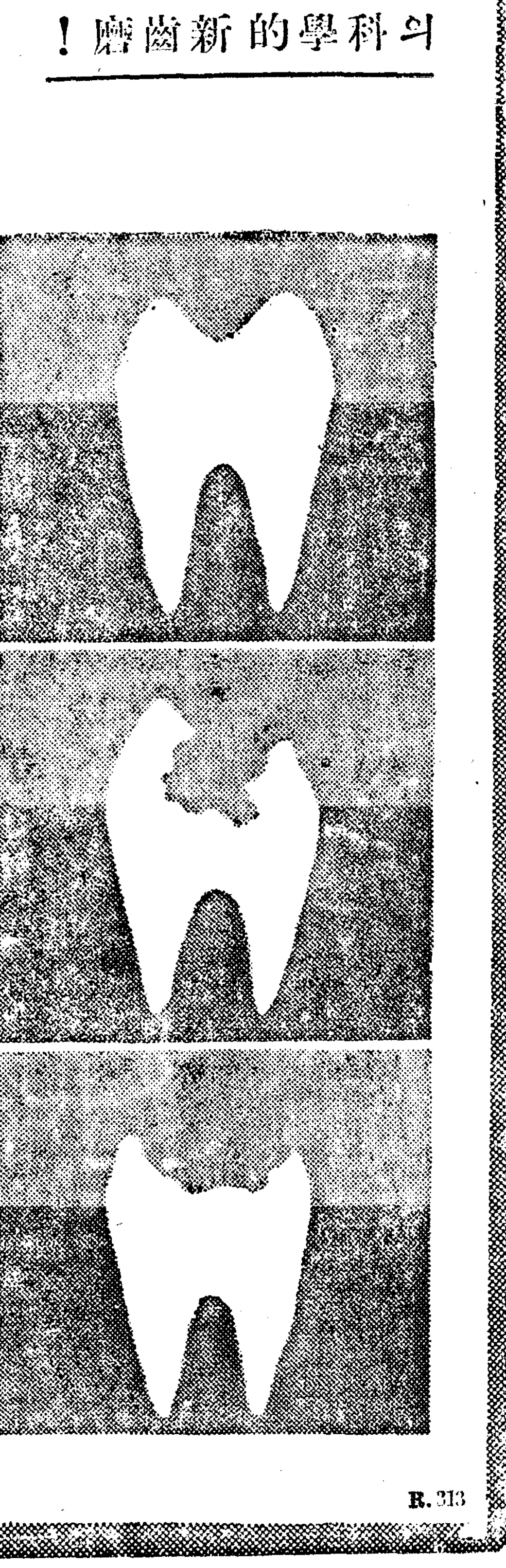
本社京城販賣所 電本②一五九七

滿洲國公認 學生募集 舊名滿洲自動車學校 改稱滿洲自動車專門學院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奉天 [illegible] 電話(二)二九四四番

京南支局電話開通 電話龍山二、三〇二番

여름에시원한머리:
花王샴푸ー로감은머리、탐스럽고潤澤한머리、참빗도잘듣고시원한머리
[illegible]

제오나이트를主劑로하는世界서唯一의科學的新齒磨!
새로운主劑로
虫齒와齒槽膿漏를完全히防止
咀嚼力을倍加하는새로운効果
無比의二大作用
置換作用 新主劑 제오라이트가齒石을置換除去하여齒槽膿漏를防止하고咀嚼力을倍加한다
吸着作用 제오라 이트가口中의汚垢黴菌을吸取하고虫齒口臭를完全히防止齒의美를살린다


宏壯한淸爽感을 試驗하여주십시요!
定價 廿五錢
發賣元 東京·兩國 ◎ ミツワ石鹼本舖化粧品部
R.313